

선(禪)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선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제857호 2011년 10월 12일 수요일 (음력 9월 9일 · 불기 2555년 · 주간)



## 창간 17주년 특집 48면 발행

<b>A</b> 종합	A2~4
'반야심경' 한글로 하세요 태고종 운산 스님 별빈 확정 범어사 대웅전 뒤로 터널이 뚫릴	
특집 · 인터뷰	A5
불자 탈렌트 전원주 어머니 덕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특집 · 출가	A7~9
50세 스님도 '나이 많다' 못하는 현실보다 문제는	
<b>B</b> 한국불교, 프랑스 가다	B1~3
떼제공동체 방문 / 유네스코 만찬 파리 길상사 법회	
특집 · 선지식을 찾아서	B12~13
달라이라마 멕시코, 다람살라 법회 현장	
지식에서 지혜를 성보박물관에서 불교문화재 즐기기	B15

미녀와 연꽃, 당신 눈에는 무엇이 먼저? '2011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컴퍼티션 코리아' 참가자들이 10월 4~5일 목동 국제컨벤션센터(주최 협조)에서 한국 불교문화 체험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2011 미스 아시아 퍼시픽 월드 컴퍼티션 코리아'는 아시아, 유럽, 미주 전 세계 71개국 미녀들이 모여 경합을 벌이는 슈퍼탈렌트 대회로,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새벽예불을 비롯해 참선, 연등 만들기 등이 진행됐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活發發한 삶 위해 갇힌 틀 깨부숴라

본지 창간 제 17주년에 부치는 글 ... 출가와 한국불교 세계화

한 학인스님이 큰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출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큰스님이 답했다. "그 질문은 오직 자신에게만 할 수 있을 뿐이니, 대담 또한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각자의 삶을 대신해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출가(出家)는 산스크리트어로는 'pravrajya' (pra는 '앞으로' vrajya는 '간다'는 뜻)이며, 가정을 떠나는 초출탈리(超出脫離)를 의미한다. 이를 줄여 출리(出離)라고도 하며 미혹한 세계를 여의고(離)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나오는(出) 것을 말한다.

출가는 뜻을 모아서 집을 떠나고 행하고 걸식으로 유행(遊行)하며 마음을 오롯하게 해 사문의 깨끗한 행을 닦는다는 의미가 됐다.

우리는 출가에 관해 많은 말들을

들어왔다. "부처가 되기 위함이다."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樂)을 얻기 위해서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上求菩提 下化衆生)." 등.

무엇보다 부처님 법을 만난 뒤 잠시잠깐이라도 출가자의 삶을 꿈꿔보지 않은 이가 있단다. 출가의 꿈을 꾸다가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를 했던, 큰스님의 모습 · 선지식의 삶에 감화 받아 출가를 했던 그 길을 택한 것은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의 전부가 그러하듯 남의 말을 따른다고 해도 그 결과는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듯이 말이다.

〈경덕전등록〉에는 "나는 몸(身)이 집에서 나왔는가? 마음(心)이 집에서 나왔는가?"라는 물음에 "내(我)가 집에서 나왔지 몸과 마음이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 이어서 "몸과 마음이 아니라면 누가 출가했

는가"라고 묻는다. 〈화엄경〉에는 "있던 집을 버릴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출가해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지이다"라는 원(願)이 있다. 몸은 집을 떠나 출가했다고 할지라도 몸만이 집을 떠난 것은 진정한 출가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거꾸로 헤아리건대, 비록 집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모든 주위 환경의 유혹을 여의고 그것들로부터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이뤄진 진정한 출가라는 것이다. 이른바 마음으로부터의 출가(心出家)이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보리심을 내는 것도 불 · 보살의 삶을 닦아간다는 점에서 출가이다. 나누고 봉사하는 삶, 밝게 웃어주는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등.

이러한 연행은 모두 귀명(歸命)에서 비롯된다.

원효 스님은 "귀(歸)는 공손히 따르는 것이며,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귀의 본래 뜻"이라고 말했다. "명(命)은 목숨의 뿌리이며, 모든 근(根)을 통제함으로 하나뿐인 몸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주인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세상 만물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 하나뿐인 목숨으로 위없는 존귀한 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귀명이다.

마음으로서 온전한 귀명을 이루면 보현보살의 원행(願行)이 저절로 이뤄진다.

〈중일아함경〉에서는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自淨其意 是諸佛敎]"라고 했다. 악을 경계함이 곧 선을 행함이고, 선을 행함이 곧 악을 경계하는 것이 된다.

출가는 철저한 자기해체를 통한 지혜의 발현이요, 정법의 실천이다. 탐욕의 폭풍우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숲을 이룬 것

이 승가이다. 때문에 승가공동체는 개인의 수행과 하나가 되며, 나와 승가는 둘이 아니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프랑스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불교가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식 포교를 했다"고 자평했다.

스님의 발언은 1700년간 갇혔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형적으로는 한반도를, 정서적으로는 한민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탄식에 다름 아니다.

조계종이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뒤 세계로 '출가' 하고 있다.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은 떼제공동체의 한 벽에 걸린 "qui suis-je?(나는 누구인가)"를 보며 다르지만 같은[即非] 논리가 처처에 증명되고 있음을 목격했다.

틀을 부숴야 나올 수 있다. 깨어야 산다. 지금이 바로 결심할 때이다. 가라(去).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숫자로 보는 현대불교신문

2.99m  
17년간 발행된 신문들 한 부씩 쌓아 올린 높이

2603만5240㎡  
(787만5680.1평)  
서울광장의 약 1971배  
17년간 발행된 현대불교의 지면을 모두 펼친 면적

723명  
현대불교와 함께한 선지식

2595권  
현대불교가 소개한 도서

4만4115건  
현대불교에 게재된 기사수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 인등 · 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제1회 2011남도문화대축전

# 확! 펼쳐라~

2011. 10. 28(금) ~ 10. 31(월)  
광주염주종합체육관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저절로 생협'이 '우리것, 좋은것'을 널리 알리고자 **제1회 2011 남도문화 대축전**을 펼칩니다.

지역별 '전통문화 명품전시장' '친환경 특산물 직거래' '예술 문화 공연' 등 지역 최대 최고 축제의 장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저절로생협 대표전화 : 1544-9955, 062-655-7577  
후원계좌 : 농협 302-0450-1729-61 저절로생협  
홈페이지 : www.ndfestival.co.kr

남도전통문화 · 명품 박람회 10.28~10.31  
친환경 특산물 직거래 장터 10.28~10.31  
유네스코 지정 평화예술단 공연 10.28~10.29  
10월의 선물 '세대공감' 콘서트 (무료) 10.30  
침 ·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 선생 초청 10.31

주최 | 사)광주전남불교신도회 주관 | 저절로생협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KBC